하림, 프리미엄 라면 진출… 20시간 끓인 '찐육수'로 차별화

김홍국 회장, 쉐프로 등장해 소개
'The미식 장인라면' 쫄깃한 건면에
농축 액상으로 재료 본연의 맛 살려
삼계탕 라면 등 라인업 확대 계획

김홍국 하림그룹 회장이 14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하림타워에서 열린 'The미식 장인라면' 출시 미디어 데이에서 신제품 출시를 알리고 있다. /손진영 기자 son@

"하림의 식품 철학은 자연에서 얻은 신선한 재료만으로 최고의 맛을 구현하는 것입니다. 이 철학을 바탕으로 만든 HMR 브랜드가 'The미식'입니다. The미식의 목적은 명확합니다. 인스턴트 식품이라 생각하는, 그래서 평가절하된 가공식품·HMR(가정간편식) 제품을 장인과 협업해 상품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첫 제품으로 'The미식 장인라면'을 선보입니다."

김홍국 하림 회장은 14일 논현동 하림타워에서 열린 'The미식 장인라면' 간담회에서 일일 쉐프로 등장해 포부를 밝혔다.

김 회장은 "라면은 가장 대중적인 HMR 제품이면서 동시에 아쉬움을 갖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분말스프의 맛이 아닌 재료 본연의 맛을 간직한 라면을 개발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제품 개발 이유를 설명했다.

The미식 장인라면은 사골과 소고기, 닭고기 등 신선한 육류 재료와 버섯, 양파, 마늘 등 각종 양념채소를 20시간 끓인 진짜 국물로 만들었다. 분말스프 형태가 아닌, 국물을 그대로 농축한 액상을 고집했다. 일반라면이 분말스프를 만들기 위해 육수를 건조하는 과정에서 훼손하는 재료 본연의 맛과 향을 그대로 살려내기 위해서다.

나트륨 양도 기존 라면(1650~1880㎎)보다 훨씬 적은 1430㎎으로 줄여 국물까지 걱정 없이 개운하게 먹을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라면이 MSG와 정제염에서 기인하는 과도한 나트륨 함량으로 건강에 해롭다는 고정관념을 깨고, 부모가 안심하고 자녀에게 권할 수 있는 라면을 만들었다는 게 회사 측의 설명이다.

또한, 제트노즐 공법 건조로 바람에 면을 말려 쫄깃하고 잘 불지 않는 건면을 활용했다. 제트노즐 공법은 짧은 시간에 평균 130℃의 강한 열풍으로 균일하게 건조한 후 저온으로 서서히 말려 면발 안에 수많은 미세공기층을 형성시키는 방식이다. 국물이 잘 베이게 하는 제면방식이다.

김 회장은 "장인라면 외에도 앞으로 신제품을 계속 출시할 예정"이라며 "삼계탕 라면이나 고명이 들어간 라면 등 새로운 방법으로 개발한 라면을 선보이겠다"고 전했다.

하림은 신성장동력으로 라면 사업을 낙점하고 지난해 전북 익산에 5200억원을 투입해 생산 공장을 완공했다. 라면과 즉석밥, 육수, 만두, 천연조미료, 죽 등 HMR 사업을 확장하겠다는 계획이다.

라면 시장에서 입지를 공고히 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지난해 판매액 기준으로 라면 시장 점유율은 농심 53.3%, 오뚜기 22.6, 삼양식품 11%, 팔도 9.2% 등 톱4 기업이 차지하는 점유율만 96.1%에 달한다.

하림 관계자는 "진입장벽이 높은 라면 시장에 후발주자로 뛰어들면서 시장을 세분화하겠다는 전략을 세웠다"고 입을 뗐다. "인터넷상에는 소비자 개개인의 요리법이 종종 올라온다. 앞으로도 그러한 경향이 짙어질 것이라 보고 여기에 맞춰서 상품을 개발·차별화할 생각"이라며 "육수나, 면 외에 고명으로 차별화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달 내에 주요 마트와 편의점에 입점된다. 할인점과 리테일, 온라인을 중심으로 소비자와의 접점을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The미식 장인라면은 편의점 판매가 기준 한봉지에 2200원이다. 700~1000원 선에 형성된 기존 라면보다 비싸다.

이에 대해 김 회장은 "원가가 많이 들더라도 본질적 맛을 추구하는 걸 잊지 말자고 다짐했다. 그러다보니 비용이 많이 들어갔고, 단가가 비싸졌다"며 "소비자 조사를 해보니 비싸더라도 제대로 된 라면을 먹겠다는 소비자가 30~40%였다.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살피고 이를 통해 대중화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The미식 장인라면은 봉지면 2종(얼큰한맛, 담백한맛)으로 출시됐으며, The미식 광고 모델로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 '오징어게임' 주인공인 이정재를 발탁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백신접종 70% 눈앞… 거리두기 완화 '촉각'

'위드 코로나' 전 조정안 오늘 발표
수도권 사적모임 인원 확대 등 전망

다음 달 초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을 앞두고 마지막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에 대한 관심이 모이고 있다. 전 국민 70% 접종 완료 목표 달성이 앞당겨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현행 거리두기 조치가 완화될지에 대한 기대도 높다.

정부는 14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 회의에서 거리두기 조정안을 논의하고, 15일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이를 발표한다. 다음 달 9일로 예정된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 전 마지막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오는 23일 전 국민 70% 접종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항체 형성 기간이 접종 후 14일임을 고려하면 다음 달 7일부터 항체 형성이 이루어진다는 가정이 가능하다.

하지만 최근 접종 속도가 지속될 경우 70% 달성은 이달 23일보다 빨라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이날 0시 기준 인구 대비 61.6%, 만 18세 이상 성인 인구의 71.6%가 백신 접종을 완료했다.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로 유지되고 있는 현행 거리두기 조치 완화에 무게가 실리는 것도 이 때문이다. 현재 방역당국은 수도권에서 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최대 6인까지로 제한된 사적모임 인원을 8인까지로 늘이고, 식당·카페 영업시간도 오후 10시에서 자정으로 2시간 연장하는 조치 등을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거리두기 시행 기간 역시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새로운 거리두기가 18일부터 적용된다면, 위드 코로나 시행 예정일까지는 3주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마지막 거리두기 적용기간이 2주로 결정된다면 나머지 일주일 '징검다리 기간'에 방역 조치 추가 완화 가능성도 있다. 접종율이 뒷받침될 경우 위드 코로나 전환시점이 한 주 가량 앞당겨질 것이란 기대도 나온다.

이와 관련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단계적 일상회복 체계 개편과 맞물려 있어서 시기를 어떻게 할지가 중요한 논의사항"이라며 "접종률 상승, 70% 달성 시점, 방역 의료체계 상황 등을 검토하면서 결정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율이 85%가 되면 영업제한 등의 조치가 없어도 델타형 변이 바이러스의 전파력을 이겨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권준욱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 제2부본부장은 "접종 완료율이 85%가 되면 이론적으로 델타 변이조차도 마스크나 집합금지, 영업금지없이 이겨낼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세경 기자 seilee@

김해공항 사업자 후보에 롯데면세점 선정

화장품·향수 등 면세사업권
특허심사 후 내달 최종 확정

롯데면세점이 김해국제공항의 화장품, 향수 면세사업권 특허사업자 후보로 선정됐다.

지난해 낙찰을 거듭했던 인천국제공항 면세점 입찰과 달리 김해국제공항 입찰에는 '위드 코로나' 대비에 나선 주요 면세점들이 일제히 뛰어 들면서 예상 밖 흥행을 기록했다.

14일 면세업계에 따르면 김해국제공한 국제선 2층 출국장 면세점(DF1)의 우선협상대상자로 기존 사업자였던 롯데면세점이 선정됐다. 오는 20일까지 관세청 특허 심사 신청을 진행, 다음달께 최종 낙찰자로 확정된다.

롯데면세점 측은 "관세청 특허심사 과정도 잘 준비해서 부산, 경남을 포함한 동남권 유통관광산업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해국제공항 면세점은 991.48㎡(300평) 규모로, 향수·화장품·기타 품목을 판매할 수 있다. 연간 매출 예상액은 1227억 원이다. 김해국제공항 면세점은 임대료에 매출연동제가 적용돼 있어 코로나19 타격에도 비용 부담이 크지 않다는 것이 장점으로 꼽힌다. 인천국제공항 등 주요 공항 면세점은 영업 환경 변동과 상관 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대료를 지불하고 있어 코로나19 타격을 받은 면세업체들에게 비용 부담을 가중시켜왔다.

또 임대 기간이 5+5년으로 최대 10년까지 운영할 수 있어 코로나19 이후 관광 특수 등 미래 가치를 고려했을 때도 김해국제공항 면세점은 매력적이라는 평가다.

면세업계는 김해국제공항을 시작으로 오는 26일 마감하는 김포국제공항 국제선 청사 3층 출국장(DF1) 면세점 운영자 선정 입찰도 흥행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김포국제공항 역시 임대기간은 최장 10년이며 임대료는 매출연동제를 적용한다.

/신원선 기자